

# 코로나 장기화에 온라인·모바일쇼핑 ‘호황’

지난해 11월 거래액 각각 15조원·10조원 돌파  
전년比 17.2%·21.9% ↑ … 2001년 이후 최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각각 15조원과 1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2% 증가했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5.8% 늘었다.

이는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5조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여파가 강했던 지난해 3~7월 12조원대를 유지하다가 8월 14조원대로 성장했고 11 달에 15조원을 넘어섰다.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1조9천억원)가 가장 많았다.

의복(1조8천억원), 음·식료품(1조8천억원), 배당입식 등 음식서비스(1조7천억원), 생활용품(1조2천억원), 화장품(1조1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6개 상품군이 전체 거래액의 63.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음식서비스(60.6%)가 가장 높았다.

음식서비스를 포함한 음·식료품(47.1%), 가전·전자·통신기기(42.4%), 생활용품(36.0%) 등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늘어난 품목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감한

여객 및 교통서비스(-52.0%)와 문화 및 레저서비스(-65.8%)는 크게 줄었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서비스비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까지 올라갔으며, 1년 전(23.1%)과 비교해 6.1%p 상승했다.

모바일쇼핑도 급성장해 지난해 11월 거래액이 10조2천598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월 6조원대에서 꾸준히 성장해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1.9% 증가했고 한 달 전보다 7.5%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8.1%로, 지난해 5월(68.2%) 이후 가장 컸고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모바일쇼핑 비중이 특히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6.1%)였고, 이어 e쿠폰서비스(86.3%), 가방(79.6%), 여행 및 교통서비스(7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음식서비스, 가전·전자·통신 등의 거래액이 증가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며 “11월에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행사 등이 많아 거래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최현준기자

지역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 계도·예방으로 바뀌어야”

지역 중소기업계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4중 처벌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5일 광주·전남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중소기업연합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를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천222개 달해 중대재해기

업처별범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  
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원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  
조합 회장은 "안전보건공단 산업 재  
해를 공표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  
주·전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확  
정된 기업이 총 190개다"며 "근로자의  
과실·법규와 무관하게 처벌하게 된다  
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광주전남지  
역 42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  
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리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하  
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  
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  
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  
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준기자



**코로나로 소비 역대 최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주류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늘었다. 5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 소비지출 금액이 1만9천651원으로 이는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대.

## 악재에도...기아차 광주공장 지난해 생산량 '선방'

44만대 생산 전년比 3.2%↓ ...셀토스 간판차 등극

지난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과 중남미 등 수출 감소, 10여 차례에 걸친 임단협 부분파업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악재를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2020년 생산량은 총 44만1천556대로 2019년 45만5천865대와 비교해 1만4천309대(3.2%) 줄었다.

국내 판매(내수)가 13만1천108대로 29.7%, 수출은 31만448대로 70.3%를

차지했다.

2019년은 내수와 수출이 각 28.3% (12만8천919대)와 71.7% (32만6천946대)였다. 수출이 2019년에 비해 5.5% (1만6천498대)가량 줄었지만, 내수가 선방해 1.7% (2천189대) 늘었다.

차종별로는 셀토스가 14만3천768대로 가장 많이 생산돼 광주공장의 간판 차종으로 등극했다.

80~90%가 수출되는 스포티지가 12만4천449대로 그다움을 이었으며 쏘울 부스트(전기차 포함)와 봉고트럭이 각 8만5천799대와 8만4천842대로 생산량이 엇비슷했다.

특히 2019년 7월 출시된 셀토스는 그 해 4만8천341대 생산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생산량이 2.7배가량 늘었다. 스토티와 쏘울 부스트는 2019년 각 17만663대와 14만2천23대로 전체 생산량 (68.6%)의 3분 2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47.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전 임직원 이 힘을 모은 결과 생산량 감소폭을 많이 줄이는 등 선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 투데이 경제



광주신보, ISO 37001 인증 획득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투명한 청렴경영 실천을 위해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단의 인증 획득은 기존의 부패방지 제도 점검, 부수별 부패 리스크 식별, 반부패 청렴 서약식, 부패방지방침 제정 등의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기관장의 부패방지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인증 받았기 때문이다.

변정섭 이사장은 “투명한 청렴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로 앞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입찰인 거록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한전KDN, 교육기부 대상 수상

한전KDN은 꾸준한 교육기부 활동을 인정받아 '2020년 제9회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은 지역의 SW교육 가치 확산에 앞장서 온 점에 대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 담당자는 "이번 대상수상은 단순 교육기부에 대한 인정을 넘어 SW교육에 대한 선순환적 모델을 창출한 점이 뜻 깊다"며 "2021년 해당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은 2020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획득했다. /박은성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市경영평가 최우수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20년 광주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4일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광주시 산하 19개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고객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그동안 민선 7기 광주 시정에 부응해 안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의 과제를 발굴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기관경영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경영혁신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올해도 ‘코로나19’ 극복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핀 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부동산 대표 유재관 올림

---

**[급구]**  
 ○ 광주시내 빌딩급구(가부간 1주일내 결정)  
 ○ 전남북 관내 농지맞임야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토지보상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